



아르헨티나, 한국산 종이 수입규제 위기 인쇄용·필기용 종이 및 판지 덤핑 조사 개시

아르헨티나 관세청 홈페이지 공표내용에 따르면, 현지에서 가장 큰 제지 회사인 LEDESMA사의 의뢰로 미국,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인쇄용/필기용 종이 및 판지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핑 조사 대상 품목은 인쇄용/필기용 종이 및 판지(HS Code 4810.13.89, 4810.13.90, 4810.19.89, 4810.19.90)이며 초기 조사 결과 대상 국가별 FOB 기준 덤핑마진율은 미국(81.81%), 한국(47.49%), 핀란드(160.81), 오스트리아(152.73%), 중국(45.52%)으로 보

고됐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3년간 진행 후 결과가 덤핑으로 판명 날 경우 반덤핑 수입 규제 조치가 발동된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해 12월 3일 기준 중국산과 브라질산 품목 위주로 총 54건의 반덤핑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은 현재 2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에 있다.

현재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국산 제품은 종이를(인쇄용/필기용 종이 및 판지)과 에어컨 등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들어 아르헨티나의 무역흑자가 1~11월간 전년대비 약 24.6% 감소했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수입규제 공세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정책에 대해 우리기업



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지 수입 파트너 및 주재국 KOTRA KBC를 통한 조치가능 기한 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페루, 포장기계 수요 꾸준히 증가
인지도 향상 위한 마케팅 절실히 필요

지난 해 라틴아메리카 내 페루는 4.9%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국민소비가 증대했으며, 특히 식·음료소비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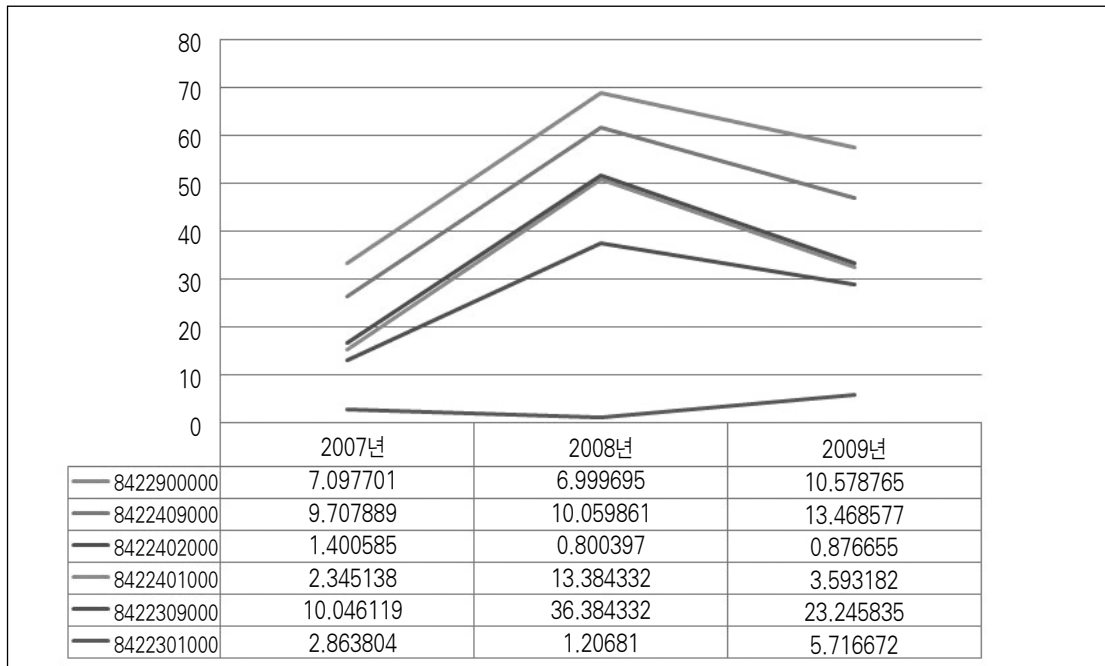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식품 및 음료 관련 포장산업이 발달하고, 식음료 포장기계의 수요 및 시장에서의 비

중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페루 내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은 광업, 농 수산업인데, 특히 최근에는 수출용 농업 붐이 일어 관련 포장기계 또한 수요가 높아졌다.

그 밖에 최근 제약산업에서의 포장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이 품목은 대부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9년, 페루 전체 GDP에서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이며, 이 중 포장기계는 1.8~2%을 차지하고 연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페루 내 내수시장 조달용 음료포장기(음료주입기 및 마개 부착기), 랩·비닐포장기와 같은 기계들을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지만 낮은 품질



▲ 2007년~2009년 포장기계 관련품목의 총 수입(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입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포장기계 관련품목의 총 수입은 41.8%로 대폭 증대했다.

2008년의 관련 품목 총수입액은 6천8백만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51.4% 증대했으며, HS 8422309000, 8422401000 두 품목의 수입이 가장 눈에 띄며, 세계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19.7% 감소했다.

최근 3년 내 동 품목의 주요수입대상국을 보면 이탈리아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의 수입이 지배적이나 최근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과 대만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은 이탈리아, 독일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브랜드를 선호하며, 나머지 업체들 대부분이 중국, 대만 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 브랜드로는 Henkelman(네덜란드), Ulma(중국), S/M(콜롬비아), DOBOY SCOTTY(미국), DELTA(이탈리아)TRANSPAK(대만), RAMON(스페인), HUAMAO, INCAMATIC(이탈리아), Lavezzini(이탈리아), Komet(독일), Multivac(독일), Koch(미국), Eccopac(중국), Henkovac(네덜란드), New Diamond(대만), Meypack(독일)이 있으며, 기타 다양한 브랜드들이 현지 유통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페루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증대와 산업 다양화,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따른 수입 확대로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내 포장기계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페루 내 유통되는 포장기계들 중 수요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식품포장기계와 제약 포장기계이다.

아직까지 한국제품들의 인지도는 현저하게 낮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또는 유능한 수입업체와의 지속적인 접촉해 대리점 또는 에이전트 계약 후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美,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지속 증가 투자 준비 필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 3억5천만 메트릭톤 중 0.2%를 차지하며 전문가들은 10년 안팎으로 플라스틱 생산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의 BASF SE는 독일 Ludwigshafen 공장 확대를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4배 이상 증가를 꾀하고, 미국 Minnetonka에 위치한 Cargill 그룹 소속 NatureWorks LLC 역시 신규 공장 건축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있다. 또한 거대 브라질 화학회사인 Barskem SA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biopolymer 시설 개발과 건축을 시작했으며, 이탈리아의 Novamont SpA는 태국에 신규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건축을 꾀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재료는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등 전분 함유량이 높은 식물 재배하고 원자재를 수확해 전분을 채취하고 있다.

채취한 전분을 특수 효소 및 발효 용품을 이



용해 플라스틱에 반응하는 화학요소를 채취한 후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하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생산해 사용 후 재활용을 위해 폐기해 토양에 다시 묻음으로써 곡물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거대기업인 Procter & Gamble 및 Johnson Inc.는 각각 Cover Girl과 Sundown에, Coca-Cola는 일회용 컵, PepsiCo는 포테이토 칩인 Frito-Lay의 포장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생산방식을 통해 자사 이미지 상승을 꾀함: 석유 사용을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며, 플라스틱 생산 후 쓰레기 양을 감소하는데도 탁월하다. 또한 미래 가능성을 위해 카펫에서부터 포크와 쓰레기 봉투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며, 주요 화학 회사들 역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향후 시장에 대비해 Braskem은 3억 달러를 투자해 매년 20만 톤에 달하는 그린 플라스틱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California 소재의 Cereplast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통해 3D 영화 시청 안경을 개발 중이다.

석유 원액 가격이 1백45달러, 천연가스 가격이 13달러 이상 상승했던 2008년에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체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해 여러 화학 회사들이 원유대비 20~30% 저렴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석유 및 천연 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플라스틱보다 10~1백% 비싼 바이오 플라스틱은 아직 가격경쟁력을 가지지는 않고 있다.

주요 쟁점은 석유 원유값으로 배럴당 65달러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한, 현재 기술로 제작된 바이오 플라스틱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 및 구매 확대로 인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원료로 생산된 포장재나 포크와 같은 도구들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아직까지 틈새 시장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생산을 늘리지 않아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대형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소기업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나서는 등 미래 수요 확



▲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제품

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바이오 플라스틱 등 그린 제품을 이용한 제품은 기업 이미지 및 상품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美, 새 식품안전 법률 인준 문제 식품 사후 조치서 사전 예방

미국의 새로운 식품안전법률안이 지난 달 4일 인준됐다.

일명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식품 안전 현대화 법안)이라 불린 이 법안은 1938년 이후 국가 식품안전 기초 법안을 재정비한 첫 번째 주요 법률으로써, 시대에 맞게 FDA의 감시·감독, 시행, 검역 등의 규정을 새롭게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이것에 대한 후조치를 취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FDA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된 제품이 발생된 장소를 생산자에게 요청하는 물론 식품안전 계획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에는 FDA가 오염된 제품을 회사가 회수할 것을 강요할 수 없고 단지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권유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만약 필요하면 FDA가 직접 오염된 제품을 회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제품들마다 오염될 소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FDA가 모든 제품을 동일한 규정으로

처리하던 것에서 이번에는 과일·야채·수입품 등 오염될 소지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FDA가 특별한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FDA가 미국내 식품 처리 시설 중 20% 이하와 국외 1% 시설만을 검역할 수 있어, 식품시설 50%가 5년이상 정부 검역을 받지 않았다는 2010 Health and Human Service inspection general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FDA가 2014년까지 2천 5백명 이상의 식품 검역관들과 식품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미국내의 식품 시설에 대한 꾸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들은 3년마다 한번씩 검역을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외에도 기록검사의 경우 대부분 FDA의 검역과정에서 오염제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무작위 검사만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식품 안전 계획, 기록 및 검사 결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FDA가 계속적으로 공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기능성 식음료 시장 주목 2014년 FFB시장 성장규모 약 20억 달러 전망

2009년도 FFB(Functional foods and beverage :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시장규모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인도의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시장 규모는 세계 1% 미만을 차지하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14~15% 성장률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35세의 젊은 소비자층 비율이 인도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강·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른 세대에 비해 기능성 식품에 친화적이다.

중산층 부모세대 비율 증가 및 10세 이하 유아 층 비율 또한 인도 전체 인구의 약 20%로, 이들 부모 세대가 육아 시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관련 기능성식품 선호함에 따라 시장 매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50%로 2013년까지 성장 전망, 급격한 도시화 또한 시장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도시 및 농촌지방 소매시장 각각 30%·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가처분소득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9%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도 및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시장 제품군별로는 Health food drinks(HFD : 건강 식품 음료), Energy and sports drinks(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Fortified juices(영양 강화 주스), Functional milk&Yoghurt(영양 강화 우유&요거트) 등이 있다.

인도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시장은 향후 5년 내 연평균 성장률이 15~18%로 상승, 현재 시장규모보다 두 배 이상 성장 할 전망이며 2014년에 이르면 시장 규모가 약 20억 달러(1천49억 루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제품을 식품 안전 및 기준법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FSSA) 제22조항 하에 관리하고 있으나 여

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제조·판매·보관 및 유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수준을 갖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제품이 단지 기업의 수익증대 방법 중 하나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잠재 소비자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신뢰를 제공해야 하며 전문의·전문기관으로부터 획득한 보증서·정확한 연구 결과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이미지 심어줘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기업들이 재료 제조업체 및 제약회사와 조인트벤처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FMCG 기업들이 시장규모를 개척하는 동안 제약회사 및 식품 재료 회사들은 R&D 센터 통해 제품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이미 많은 다국적기업이 제휴 및 합작투자 형태로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제품 포장이 소비자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 포장기술은 아직 세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능성 식품 및 음료 제품의 디자인·포장단위·라벨링 등은 기타 제품 대비 포장에 특별한 노력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Britannia사의 Cheese Slices와 Nutrichoice 5 Grain biscuit 알맞은 분량의 포장 단위로 구성했다.

PackPlus·Intelpack·India Converting

Show과 India Packaging Show 등 다양한 포장 관련 전시회가 인도 국내에서 개최되고 기능성식품사업자들은 포장기술의 개발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 반덤핑 규제 철폐요구 움직임
GCC 국가, 석유화학제품 규제 철폐 주장

일부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에서 시행되는 반덤핑 규제 철폐를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지역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화학기업인 NATPET사는 지난 해 8~11일까지 개최된 두바이 Arabplast 전시회에서 걸프지역 국가들이 석유화학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공동으로 규제철폐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덤핑 제재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NATPET사는 석유화학업계의 자국민 고용비를 증대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은 50%를 차지하지만 다른 걸프지역 국가의 석유화학기업의 자국민 고용비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각국의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민 종사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와 산업 지도층에게 석유화학분야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동 산유국들은 경제 다각화를 목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국가들이 보유한 석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걸프지역 국가들은 이번 반덤핑 규제 철폐요구 이외에도 최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므로 향후 이들 국가의 무역정책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걸프지역 국가들은 석유,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풍부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가격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은 첨단 석유화학제품에 집중해 비교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